

말씀을 전할 때...

말씀은 천천히 잘 전해주어야 된다. 잘못 전해서 한 줄이 지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다. 말씀 천천히 잘 전해야 된다. 그러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다. 말씀 계시 받은 것을 한 줄만 잘못 전하거나, 슬쩍 지나가도 그날 목사의 말씀이 그냥 죽이 되어 버린다.

말씀 천천히 잘 전하라. 한줄 빠지면 끝난다. 핵심적인 것은 줄을 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거듭 말해주어야 한다.

-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주 소리 나가게 기도해놓았기에 혼자서 읽는 것과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. 설교하는 그 시간에 능력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. 고로 시간 지켜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.

특히 “내가 사랑한다.” 는 말씀 이후로는 대화체의 말씀인 고로,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. 고로 더욱 더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였으니 입을 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.